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경제혁신

희망의 새시대

<http://www.motie.go.kr>

보도참고자료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단희수 과장(044-203-4330), 김등용 사무관(4333)

조선해양산업인,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위기극복을 다짐 - CEO 간담회 및 2016년 신년인사회 개최 [1.14(목), 15:30~, 부산] -

- 2016년 조선해양업계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가 산업부 박일준 산업정책실장, 이진복 의원, 김규옥 부산시 부시장, 박대영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, 1.14(목) 15:30 부산 웨스턴조선호텔과 누리마루에서 개최됨

<조선해양업계 CEO 간담회 및 2015년도 신년인사회 개최>

- 일시 및 장소 : '16.1.14(목) 15:30~18:00, 부산 웨스턴조선H/누리마루
 - (간담회) 15:30~15:55, 부산 웨스턴조선호텔 2층 로즈룸
 - (신년인사회) 16:05~18:00,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2층
- 주요 참석자
 - (간담회)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정책실장,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박대영 회장, 현대중공업 김정환 사장,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서영주 부회장 등 11명
 - (신년인사회) 조선해양산업계, 정계, 학계 등 100여명

- 이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은 금년도 조선해양 수주목표(잠정치)를 '15년 실적 대비 36.6% 증가한 456억불*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면서, 수출은 366억불로 전망함

*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9개 회원사 기준

- 이를 위해, 업체별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, 친환경선박 등 미래新시장 진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“공정효율화”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

- 다만, 업계에서는 '17년 이후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, 해외 고기능 용접인력 도입 확대, 선박금융(RG 등)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

* 세계 발주량전망(백만CGT, '15.9월 클락슨) : (15) 33.8 ('16) 29.5 ('17~'20평균) 37.8

- 대형 조선사의 경우,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경험을 보유한 고기량 기능인력이 국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,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함
- 중소조선소사는 장기화된 시황침체로 인해 국내외 일감 부족 등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

- 이에 대해, 박 실장은 친환경 선박,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등 경쟁국과 차별화된 시장을 선점하여 주력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힘

- 특히, 해외인력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당면한 인력난을 해소하고, 중소조선소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친환경 개조, 여객선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
- 아울러,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관련 산업 육성 및 해양플랜트 산업 내실화 등을 통해 미래 우리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함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김등용 사무관 ☎ 044-203-43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공누리
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